

청소년의 재정적 태도와 소비행동 및 재정만족도*

A Study on Financial Attitudes, Spending Behaviors and the Financial Satisfaction of Adolescent Consumer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조교수 홍은실**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ong, Eun-Si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financial attitudes, spending behaviors and the financial satisfaction of adolescent consumers. The study used Cronbach's α ,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applied it to 1,252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Path analysis revealed that the financial satisfaction of adolescents had a direct linear relationship with variables such as grade, sex, financial attitudes (financial situation compared to past and financial situation compared to others) and three types of spending behaviors (planned, conspicuous and excessive). Planned spending behavior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financial satisfaction.

Planned spending behavior had positive linear relationship with the attitude toward the past financial situation. Conspicuous spending behavior had positive linear relationships with the attitudes toward the past financial situation and the financial situation compared to others. However, it showed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attitude toward a future financial situation. Impulsive spending behavior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attitude toward others' financial situation. Excessive spending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attitude toward a past financial situation but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to the attitude toward others' financial situation.

▲주요어(Key Words) : 재정적 태도(financial attitude), 소비행동(spending behavior), 재정만족도(financial satisfaction)

I. 서론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돈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돈이 생존을 위한 필수도구가 되었다. 돈이 곧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돈이 행복의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돈은 단지 삶에 필요한 필수적인

수단일 뿐이다. 사람들은 돈을 소비함으로써 안전과 안락, 자유, 힘, 심리적인 만족 등을 얻고 있다(Hallowell & Grace, 1991). 이는 돈이 인간에게 안정감과 자유를 주며,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해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두 사람이 객관적으로 비슷한 재정상태에 놓여 있다 해도 각기 다르게 자신의 재정적 상태를 지각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돈을 많이 소유할수록 다양한 소비의 기회가 주어져서

* 이 논문은 2003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홍은실 (E-mail : esmail@jnu.ac.kr)

큰 만족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반드시 많은 돈이 큰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또한 효과적인 경제적 기능수행이 더 많은 수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때 수많은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 궁핍한 말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이젠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며, 소득이 더 많아졌는데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는 허다하다. 저명한 재정상담가인 Larry Burkett은 바람직한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것보다 주어진 소득을 잘 지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조성표, 1992). 다시 말해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는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와 주어진 소득으로 규모 있게 소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동의 예측인자로 증명되어 왔으며, 뿐만 아니라 행동의 결과인 산출요소로서 만족 혹은 불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태도-행동-산출의 관계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며, 몇 년이 지나면 사회에 나가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벌게 될 세대들이다. 이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돈을 제대로 잘 소비하여 관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아동도 아니고 완전한 성인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혼란은 청소년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소비보다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자행동을 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이기춘, 2000).

성인은 이미 자신만의 태도와 행동패턴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거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는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확립하여, 기존의 옳지 않은 태도와 행동을 지양할 수 절호의 시기일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소비습관은 성인기에도 영향을 주므로 이 시기의 올바른 소비습관형성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한편 청소년기를 보통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약 10년 정도로 보기 때문(장휘숙, 2000) 같은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초기청소년은 아동기와 비슷한 소비행동을, 후기청소년은 성인기와 비슷한 소비행동과 재정관련 특성을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단계 중 한 단계(ex, 대학생) 혹은 한두 단계(ex, 중·고등학생)에 속하는 청소년만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소비행동과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동시에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시기의 한 단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소년 전 단계를 동시에 조사하여 단계별 변화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도수정이나 행동수정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중, 고, 대학생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현대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정(돈)'을 중심으로,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 그리고 이들의 태도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정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삼아서 이들의 인과적 관계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가 합리적인 소비행동(계획소비)과 비합리적인 소비행동(과시소비, 충동소비, 과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적 태도와 소비행동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소비행동을 위해 요구되는 청소년의 재정적 태도를 제시하고, 과시소비나 충동소비, 과소비와 같은 청소년기에 문제가 되는 소비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청소년소비자의 특징

일반적으로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이후 약 10년을 포함하는 시기이며(장휘숙, 2000), 이는 다시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소비자는 다른 시기의 소비자와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기춘(2000)은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부모의 의존에서 독립하려는 청소년기의 과도기적인 특성은 청소년소비자 자신의 구매의사결정권이 향상되어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는 쪽으로 나타난다. 즉 아동소비자보다는 본인이 구매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고 가계의 구매의사결정 참여도도 높은 편이다. 둘째, 청소년은 자신을 개념화시키고 가족보다는 친구나 교사와의 동일시에 초점을 두면서 생활양식의 의식적인 변화를 갖기 시작한다. 특히 또래집단이 청소년의 소비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단순한 소비행위로부터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소비행태로 옮겨가는 과정이어서 청소년기의 소비관련 경험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어 성인소비자행동의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넷째,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적 자극, 가치관의 혼란, 소비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과시소비, 충동

소비, 과소비 등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소비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경향과 자유재량 소비액의 증가, 가치관과 가족구조의 변화, 가정의 경제적 향상 등이 맞물려 작용하면서 청소년소비자가 대규모 소비재 시장을 구성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소비자집단으로 대두되고 있다(이기춘, 2000: 224 재인용).

2. 청소년소비자와 소비행동

1) 합리적 소비행동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활용하면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을 합리적인 소비행동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행동은 개인수준에서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행동이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의 미래를 의식하는 친사회적 소비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권미화 · 이기춘, 2000).

이와 마찬가지로 합리성에는 인식적 합리성(cognitive rationality)과 사회적 합리성(social rationality)이 있는데 인식적 합리성은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들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다시 말해 자기이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뜻한다(정준, 1997). 인식적 합리성 측면에서 보면 소비행동을 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들어올 수입과 지출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맞게 지출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이야말로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차단하는 필수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적 합리성은 훈련을 통해서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인식적 합리성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은 아무리 많은 수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 재정상태에 대한 불만족 등을 가져올 것이다.

홍은실 등(2001a, 2001b)은 합리적인 소비행동인 계획적 소비행동으로 인식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일정한 회계기간 동안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지출을 배분하며 계획에 맞춰 실행, 평가를 하는 등의 예산생활과 지출기록, 저축을 하는지의 여부로 금전관리행동의 합리성을 측정하였다. Grable과 Joo(2001)는 합리적인 소비행동(재정행동)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구매 전 구매목록 작성, 저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합리적인 소비행동은 위에서 살펴본 인식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소비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실행력을 포함하는 계획적 소비행동(planned spending behavior)을 합리적인 소비행동으로 보았다.

2) 비합리적인 소비행동

이기춘(2000)은 청소년소비자가 청소년기의 특성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심한 갈등을 겪게 되며, 이런 갈등을 과시소비나 모방소비, 충동구매, 과소비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소비행동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김혜인 · 이승신, 2003; 석봉화, 1997; 유경희, 1999; 유두련 외, 2004; 이윤금 · 이남숙, 1999; 이은희, 1999; 주문자 · 김영신, 2004; 편세린, 1997 등)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이 부분에서는 청소년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으로 과시소비와 충동소비, 과소비를 고찰할 것이다.

(1) 과시적 소비행동(conspicuous spending behavior)

Veblen(1934)은 과시소비란 효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혜인 · 이승신, 2003: 147 재인용). 과시소비 개념은 때로 과소비와 혼용되는 경우도 있고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하지만, 과소비가 과도한 소비를 말한다고 했을 때 과시소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두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백경미(1995)는 과시소비를 과소비의 하위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성엽(1997)은 과시소비를 과소비를 유발시키는 주요요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을 동등한 위치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며, 과시적 소비행동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징성을 통해 지위를 획득, 유지하거나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백경미(1995)는 과시소비를 상징적으로 상품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행동, 타인이 인정하는 상품이나 유명상표 및 외제품을 선호하는 행동, 그리고 고급적이면 고가품을 구매하는 행동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편세린(1997)은 제품의 지위상징성 인식, 타인이 인정하는 제품이나 유명상표 선호, 고급제품이나 고가품 구매, 외제품 선호, 가짜유명상표 제품 구매, 유행추구 등이 하위개념을 선정하였다.

한편 유경희(1999)는 의류, 학용품, 신발, 가방 등을 구입할 때 지위과시로서 제품을 사용, 유명상표 선호, 타인이 인정하는 제품의 선호, 국산품보다는 외제품을 사용, 고급적이면 고급제품 구입, 제품의 지위상징성 인식, 소비생활을 통해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정도를 등을

측정하였다. 이은희(1999)는 선행연구(박은아, 1994; 백경미, 1995 등)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과소소비의 하위영역을 제품의 지위 상징성 인식, 유명상표 선호, 유행추구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김혜인과 이승신(2003)은 과소소비를 유명상표선호, 수입품 및 고가품선호, 유행 및 타인지향의 하위부문으로 국한해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소소비행동은 제품의 지위 상징성 인식, 타인지향, 유명상표 선호를 포함한다. 청소년소비자의 과소소비성향은 비교적 높고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기춘, 2000).

(2) 충동적 소비행동(impulsive spending behavior)

충동적 소비행동이란 소비자가 갑작스럽고 때때로 강력하며 저항할 수 없는 즉각적인 구매 욕구를 경험할 때 발생하고, 복잡하며 감정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iron(1991)은 충동구매를 3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충동구매란 비계획적 구매이며 둘째, 비계획적 구매와 자극노출의 결과이며 셋째, 구매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현장성(on-the-spot)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현장성이란 구매의 사결정이 진행되고 만들어지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이라는 뜻으로 정의되는데 그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충동구매의 현장성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Rook 등(1985)은 충동구매를 비계획적 구매보다 좁은 범위로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충동적인 사람들의 공통된 성향은 근심, 우울감,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 충동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그들이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규칙을 세우거나 규칙을 유지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로 충동적 구매자들은 그들의 구매 후나 구매 전에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상태를 경험하며 범죄를 저지른단가 하는 반사회적인 충동성을 보이기도 한다(Hirschman, 1992). 이채희(1998)는 실제시장에서의 충동구매경향을 측정하였으며 주문자와 김영신(2004)은 신용카드를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의 충동성향을 측정하였다.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기업의 마케팅, 광고, 판촉 기법과 일반화된 셀프 서비스 판매, 신용카드의 보편화, 경제수준 상승,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자극하고 있는 환경에서 아직까지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청소년은 충동구매욕구를 억제하기 어렵다. 청소년소비자는 자아개념의 미확립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상품구매시에도 상품의 가치보다는 정신적 불안정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써 충동구매를 하기 쉽다(이기춘, 2000).

(3) 과소비행동(excessive spending behavior)

과소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과소비 가계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소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은 한정된 용돈과 신용카드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점 등의 소비액수의 제한이 있어서 과소비행동이 심하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소비행동에서 과소비 성향은 이 시기에 이미 형성되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소비욕구는 과도한데 비해 소비가능액수는 한정적이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획득하려고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범죄의 예방차원에서 과소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과소비란 자신이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수준으로 정의되고 있다(Lytton, Garman, & Porter, 1991). Lytton 등(1991)은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은 재무상담자들이 가정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 비율을 측정함에 있어서 저축과 투자부문을 제외한 총 소비지출의 합계와 가처분 소득을 사용하였는데 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소비하는 가계로 간주되며, 이러한 가계의 경우 신용이나 저축을 사용하여 초과지출을 한다고 하였다. 가계를 대상으로 한 과소비 연구(박명희 외, 1996; Lytton, et. al., 1991)는 주로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과소비 비율을 계산하여 과소비를 측정하며, 개인의 과소비를 측정할 때는 경제학적 측면의 과소비 비율을 측정하기도 하지만 주로 과소비성향의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과소비를 측정하기도 한다.

김성엽(1997)은 과소비는 개인적 차원에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라는 개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도덕성과 평등성의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소득에 비해 많은 소비, 과도한 과소소비, 향락산업 업소출입 등 비윤리적인 소비에의 과다 지출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소비행동은 지나치게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에 집착하는 과소비성향을 말한다.

3. 청소년소비자와 재정

1) 재정적 태도

재정적 태도가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태도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특정 대상물에 대한 선호 또는 비선호의 정도를 평가하여 표현하는 '전반적인 평가' 또는 '심리적 경향'(Engel, Blackwell, & Miniard, 1990)이라고 할 때 재정적 태도는 재정적 상황이나 재정관련 대상물에 대해 느끼는 선호 또는 비선호, 긍정 혹은 부정 등의 평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Rosenberg 등(1960)은 태도는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를

통하여 사람마다 전체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인지적 요소는 신념요소라고도 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신념을 나타낸다. 감정적 요소는 태도대상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며, 행동적 요소는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나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김동기 외, 2001: 325-327 재인용).

재정적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Hira와 Mugenda(1999)는 재정적 신념(financial beliefs)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게 했으며, Grable과 Joo(2001)는 재정적 자신감(financial confidence)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재정적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Hira와 Mugenda(1999)는 사람들이 다음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재정적 신념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자신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재정상황이 어떠한지의 지각을 통하여 드러내며, 둘째는 타인과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재정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각함으로써 드러내고, 셋째는 미래 재정상황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드러낸다. 따라서 Hira와 Mugenda(1999)는 재정적 신념을 과거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지각, 타인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지각, 미래 재정상태에 대한 지각으로 나누어 세 가지 인지적 요소를 구성하였으며, 감정적 요소로서 이 신념들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하게 함으로 재정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Grable과 Joo(2001)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 재정관리능력에 대한 자신감, 지금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자신감, 미래 재정에 대한 자신감을 포함한 재정적 자신감(확신감) 척도를 개발하여 재정적 자신감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김정숙(1996)은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를 소득적절성인지도, 자산 적절성인지도, 한 국경제상황인지도, 재정상태 향상감, 재정상태기대감, 재정상태열망도, 준거집단 비교감으로 인지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재정적 상황에 대한 태도는 반드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Rubenstein, 1981), 다양한 하위영역별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재정적 태도는 종단적(longitudinal) 측면에서 과거의 재정상황과 비교한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와 미래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횡단적(cross-sectional) 측면에서 현재 타인(또래친구)과 비교했을 때의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것이다. 재정적 태도는 이러한 각 재정상태에 대해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이라 할 수 있다.

2) 재정만족도

재정적 만족은 개인이 원하는 재정상태 수준과 실제적인 재정상태간의 차이를 지각함으로써 형성되는 주관적인 만족정도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적 접근에 의한 재정관리체계에서 재정만족도는 재정관리의 결과로 성취되는 산출요소로서 가계관리자가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경험한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고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요구와 자원을 투입하여 구체적인 재정관리행동을 수행한 결과 요구의 충족과 자원의 사용이라는 일련의 산출을 얻게 되고 그 성취정도는 만족감으로 나타난다(홍향숙, 1997). 따라서 재정만족도는 자신의 재정목표나 재정적 기대의 달성정도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충족감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가계가 원하는 재정적 표준과 실제적으로 느끼는 재정적 수준 사이에서 지각되는 차이의 정도인 것이다. 개인이나 가계가 느끼는 재정만족감은 재정상황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다 적게 지각할수록 커지게 될 것이고, 불만족감은 이러한 차이를 보다 크게 지각할수록 커지는 것이다(김정숙, 1996).

재정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현재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을 묻는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연구(임정빈 등, 1998; 홍은실·황덕순, 2002)와 다양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이종혜, 1993; Davis & Helmick, 1985)를 참고로 척도를 구성한 개선자와 김을용(1999)은 저축액 만족, 순자산 만족, 소득수준 만족, 소비수준 만족, 재정위기에 대한 비상준비금 만족, 노후자산대책 만족의 6하위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김정숙(1996)은 저축수준, 자산수준, 전반적인 소비생활수준, 신용정도, 경제적으로 안전한 은퇴를 할 가능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비용을 충당할 능력 등에 대한 만족으로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Hira와 Mugenda(1999)는 재정만족도를 저축수준, 부채수준, 가족의 현재 재정적 상황, 장기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재정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재정적 의사결정 능력의 6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3) 재정적 태도와 소비행동, 재정만족도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 재정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Hira와 Mugenda의 연구(1999)가 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는 과소비행동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정만족도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서 과거에 비해 현재 재정상태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할수록 재정만족도가 높았다.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는 과소비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재정만족도와는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다른 사람들보다 현재 자신의 재정상태가 더 낫다고 평가할수록 과소비행동을 적게 하며,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미래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는 과소비행동이나 재정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박미정(2001)의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과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과소비성향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김혜인·이승신, 2003; 석봉화, 1997; 편세린, 1997).

현재재정상태가 5년 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로 향상되었는지의 재정상태 향상감과 앞으로 5년 후의 가계의 재정상태의 변화에 대한 기대정도인 재정상태 기대감, 이웃이나 친지 그리고 다른 가계와 비교하여 자신의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준거집단 비교감은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김정숙, 1996).

청소년 후기인 여대생은 계획적 소비행동을 할수록 자신의 재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홍은실 외, 2001b 홍은실·황덕순, 2002), 청소년 초, 중기인 중·고등학생은 과소비행동과 주관적 소비생활수준은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석봉화, 1997; 유두련 외, 2004).

충동구매는 비계획적이며 자극에 노출된 후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충동구매의 감정적 반응이 소비자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Piron, 1991), 충동적 구매자들은 구매 후에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상태를 경험한다(Hirschman, 1992)고 한다. 과소비행동은 재정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Hira & Mugenda, 1999).

4. 재정 변인과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본 연구 인과모형에 포함된 배경변인은 청소년 소비자 개인의 일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성별과 학년(연령), 그리고 가정환경적 특성으로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을 선택하였다. 재정적 태도나 재정만족도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허경옥, 2004)에서는 남성과 연령이 낮은 소비자가 소비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소비행동 가운데 계획적 소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자, 2003; 김정훈, 1993) 고등학생은 학년이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으나(홍은실 외, 2001a) 대학생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계획적 소비를 많이 하였다(홍은실·황덕순, 2002).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여자고등학생의 합리적인 소비행동은 중간점수 이하를 보인(홍은실 외, 2001a) 반면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여자대학생의 합리적인 소비행동은 중간점수 이상으로 나타나서

(홍은실 외, 2001b) 청소년 중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합리적인 소비행동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 가운데 어머니 학력은 오히려 합리적인 금전사용경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은실 외, 200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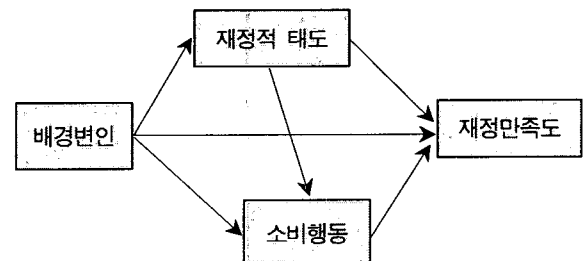
청소년의 과소비성향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인·이승신, 2003; 석봉화, 1997; 편세린, 1997).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윤금·이남숙, 1999)에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과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과소비성향이 높다가 대학생이 되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소비의 성별 차이는 여학생이 더 높다는 연구(김혜인·이승신, 2003; 유두련 외, 2004)와 남학생이 더 높다는 연구(석봉화, 1997; 이은희, 1999)가 있다. 부모의 학력 가운데 아버지의 학력은 과소비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유두련 외, 2004)와 없다는 연구(석봉화, 1997; 이은희, 1999)도 있으나 어머니의 학력은 과소비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데 연구결과(김혜인·이승신, 2003; 석봉화, 1997; 유두련 외, 2004; 이은희, 1999)가 일치하고 있다.

충동소비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aber, 1992; Roberts, 1990). 연령은 어릴수록 충동구매성향이 강하며(박철, 1996; Rook et al., 1985),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문자·김영신, 2004)에서도 연령이 어릴수록 충동소비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은 화이트칼라일수록 충동구매성향이 높은 것 나타났다(박철, 1996).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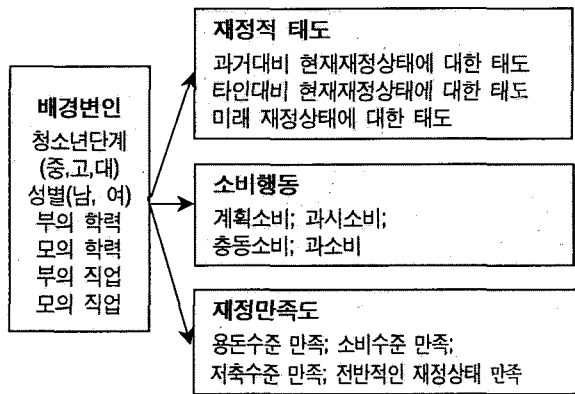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먼저 배경변인에 따른 세 변인의 차이검증을 하여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포함한 기초적인 분석을 한 후, 상관관계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하여 위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배경변인에 따라 재정적 태도와 소비행동, 재정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배경변인과 재정적 태도, 소비행동, 재정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계는 어떠한가?

- 2-1. 배경변인은 재정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2. 배경변인과 재정적 태도는 각 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3. 배경변인과 재정적 태도, 각 소비행동은 재정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4. 재정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 재정적 태도, 소비행동의 인과적 효과는 어떠한가?

3. 변수의 정의 및 척도의 구성

1) 재정적 태도

재정적 태도는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느낌으로 볼 수 있다. 척도는 Hira와 Mugenda(1999)가 재정적 신념(financial beliefs)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자가 청소년 소비자에게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과거대비 현재재정상태', '타인대비 현재재정상태', '미래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로 3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과거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는 과거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개인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매우 나빠졌다'에서 '매우 좋아졌

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타인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는 현재 다른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개인재정상태가 어떠한지를 평가하게 하는 문항으로 '매우 나쁘다'에서 '아주 좋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미래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는 앞으로 2~3년 후에 자신의 개인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묻는 문항으로 '매우 나빠질 것이다'에서 '매우 좋아질 것이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세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재정적 태도의 전체점수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상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48이었다.

2) 소비행동

(1) 계획적 소비행동: 소비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실행력을 포함하는 소비행동을 말한다. Grable과 Joo(2001)가 소비행동으로 측정된 8문항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린 2문항을 삭제하고 6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계획적 소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69였다.

(2) 과시소비행동: 상품과 서비스의 상징성을 통해 지위를 획득, 유지하거나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시적 소비의 척도는 선행연구(박은아, 1994; 백경미, 1995; 이은희, 1999)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과시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3) 충동소비행동: 소비자가 갑작스럽고 때때로 강력하며 저항할 수 없는 즉각적인 구매 욕구를 경험할 때 발생하고, 복잡하며 감정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충동적 소비행동의 척도는 선행연구(리대용 등, 1997; 양윤·이채희, 2000; 이채희, 1998)를 기초로 8문항을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 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4) 과소비행동: 지나치게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에 집착하는 소비행동을 말한다. 척도는 Hira와 Mugenda(1999)가 Edwards(1993)의 척도를 가지고 만든 과소

비행동 척도 9문항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를 떨어뜨린 1문항을 제외하고 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3) 재정만족도

재정만족도는 Hira와 Mugenda(1999)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척도와 계선자와 유을용(1999)의 재정만족도 척도를 참고하여 용돈수준(아르바이트 수입 포함) 만족, 소비수준 만족, 저축액수의 만족,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매우 불만족한다'에서 '매우 만족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4) 배경변인

청소년 단계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별로 나누며, 중회귀분석에서 사용하는 학년변인은 중학교 1~3학년에 각각 1~3점을 주고, 고등학교 1~3학년에게는 각각 4~6점을, 대학교 1~4학년에는 각각 7~10점을 주었다. 성별은 남학생은 1점, 여학생은 0점을 주는 가변수(dummy variable)처리를 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교육받은 햇수를 적게 하였으

며, 부모의 직업은 무직 1점, 생산직 2점에서 전문직 7점에 이르는 서열적 측정을 하였다.

4.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중, 고, 대학생으로 청소년기 소비자이다. 청소년 소비자란 연령이나 생활주기를 중심으로 해서 분류된 소비자유형의 하나로 아동기와 성년기 사이의 청소년기에 속하는 소비자이다. 이는 심리적 발달단계로 볼 때 사춘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약 10년을 포함하는 시기로 대략 12세~22세의 연령층을 일컫는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10대와 20대 초반을 대부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교육단계와 일치하게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장휘숙, 2000)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해당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수집은 2004년 9~10월 광주광역시 소재 D, M중학교와 S, D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실에서 질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대학생은 C대학교 J대학, G대학에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교수의 도움을 받아 강의시간에 질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총 1,252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변수		단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전체
학교 단계	1학년		105(26.9)	158(38.5)	153(34.0)	-
	2학년		124(31.7)	126(30.7)	102(22.7)	-
	3학년		162(41.4)	126(30.7)	108(24.0)	-
	4학년		-	-	87(19.3)	-
성별	남		181(46.3)	198(48.3)	118(26.2)	497(39.7)
	여		210(53.7)	212(51.7)	333(73.8)	755(60.3)
부의 학력	중졸		63(16.1)	35(8.5)	67(14.9)	165(13.2)
	고졸		97(24.8)	140(34.2)	197(43.7)	434(34.7)
	대학이상		231(59.1)	235(57.3)	187(41.5)	653(52.2)
모의 학력	중졸		67(17.1)	56(13.7)	123(27.3)	246(19.7)
	고졸		166(42.5)	222(54.2)	254(56.3)	642(51.3)
	대학이상		158(40.4)	132(32.2)	74(16.4)	364(29.1)
부의 직업	무		11(2.9)	9(2.2)	12(2.7)	32(2.6)
	생산, 판매, 서비스		113(29.9)	115(28.7)	173(39.3)	401(32.9)
	사무, 기술직		179(47.4)	186(46.4)	181(41.1)	546(44.8)
	관리, 전문직		75(19.8)	91(22.7)	74(16.8)	240(19.7)
모의 직업	무		179(47.2)	224(54.9)	253(56.9)	656(53.3)
	생산, 판매, 서비스		99(26.1)	114(27.9)	146(32.8)	359(29.1)
	사무, 기술직		69(18.2)	51(12.5)	35(7.9)	155(12.6)
	관리, 전문직		32(8.4)	19(4.7)	11(2.5)	62(5.0)
전체			391(31.2)	410(32.8)	451(36.0)	1,252(100)

*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t검증(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사후검증으로 던컨의 다중비교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그리고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과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해석

1.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적 태도, 소비행동, 재정만족도

1)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적 태도

재정적 태도의 하위영역 가운데 미래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평균 3.77로 가장 높았고, 과거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는 3.23점이었으며, 타인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3.0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점수의 평균은 3.36이었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자신의 재정에 대해 중간정도 이상의 태도를 보였으며 미래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반면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의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적 태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과거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는 청

소년 단계, 성별,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생(3.20)이나 대학생(3.17)에 비해 중학생(3.33)이 과거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재정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3.18)보다 남학생(3.30)이 더 높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이 사무·기술직(3.32)이거나 관리·전문직(3.25)인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타인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이상인 집단과 미만인 집단간에,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이상과 미만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이상인 학생(3.14)과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이상인 학생(3.16)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현재 다른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재정상태가 좋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직업이 없는 집단(2.81)과 사무·기술직인 집단(3.06), 관리·전문직인 집단(3.29)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타인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관리·전문직인 집단(3.39)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어머니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학생(3.39)이 타인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미래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는 성별과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3.68)보다 여학생(3.84)이, 어머니의 직업이 사무·기술직인 학생(3.61)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앞으로 2~3년 후에 자신의 개인재정

<표 2>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적 태도

변인	재정적태도	과거대비			타인대비			미래			전체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단계	중학생	3.33	A	3.49*	3.07		0.02	3.76		2.30	3.39		1.07
	고등학생	3.20	B		3.06			3.72			3.33		
	대학생	3.17	B		3.06			3.83			3.35		
성별	남자	3.30		-2.20*	3.05		0.47	3.68		3.63***	3.34		0.67
	여자	3.18			3.07			3.84			3.36		
부의 학력	중졸	3.26		2.78	2.93	B	6.99***	3.75		0.13	3.31	B	3.68*
	고졸	3.15			3.00	B		3.78			3.31	B	
	대학이상	3.28			3.14	A		3.78			3.40	A	
모의 학력	중졸	3.22		0.53	2.96	B	5.73**	3.79		0.11	3.32		1.55
	고졸	3.21			3.04	B		3.38			3.34		
	대학이상	3.27			3.16	A		3.76			3.40		
부의 직업	무	3.13	B	3.67*	2.81	C	9.58***	3.81		0.19	3.25	B	3.23*
	생산,판매	3.13	B		2.99	BC		3.80			3.31	AB	
	사무,기술	3.32	A		3.06	B		3.77			3.38	AB	
	관리,전문	3.25	A		3.29	A		3.76			3.43	A	
모의 직업	무	3.25		1.63	3.07	B	4.34**	3.80	A	3.18*	3.37	B	3.55*
	생산,판매	3.16			3.02	B		3.81	A		3.33	B	
	사무,기술	3.25			3.03	B		3.61	B		3.30	B	
	관리,전문	3.40			3.39	A		3.86	A		3.55	A	
평균		3.23			3.06			3.77			3.36		

* p<.05 ** p<.01 ***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상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재정적 태도의 전체점수는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미만인 학생보다 대학이상인 학생(3.40)이, 아버지의 직업이 없는 학생(3.25)보다 관리·전문직인 학생(3.43)이, 어머니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학생(3.55)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전체적인 재정적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소비행동

4가지 소비행동 모두 중간점수 3미만의 점수를 보였다. 합리적인 소비행동이라 할 수 있는 계획적 소비행동은 2.78로 낮은 점수를 보여 조사대상 청소년의 합리적 소비행동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 비합리적인 소비행동 가운데 충동소비 점수가 2.81로 가장 높았고, 과시소비 점수는 2.69이며 과소비행동 점수는 2.41로 가장 낮았다.

배경변인에 따른 각 소비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계획적 소비행동은 청소년 단계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2.66), 고등학생(2.67)보다 대학생(2.98)이, 남학생(2.60)보다 여학생(2.89)이 계획적 소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실행력에 있어서는 중, 고등학생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이 시기에

비해 대학생 시기에 약간 높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계획적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선행연구(김경자, 2003; 김정훈, 1993)에서도 밝혀진 결과와 일치한다.

과시소비행동은 청소년 단계와 성별,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 고, 대학생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고등학생(2.57)의 과시소비행동 점수가 가장 높고 중학생(2.57)이 가장 낮았다. 선행연구(김혜인·이승신, 2003; 석봉화, 1997; 편세린, 1997)에서도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과시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윤금·이남숙, 1999)에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과시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과시소비성향이 높다가 대학생이 되어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2.74)이 남학생(2.60)보다 과시소비 경향이 더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과시소비성향은 여학생이 더 높다는 연구(김혜인·이승신, 2003; 유두련 등, 2004)와 남학생이 더 높다는 연구(석봉화, 1997; 이은희, 1999)가 있어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모두 고졸이상인 집단과 중졸이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상인 학생에게서 과시소비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유두련 등(2004)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

<표 3> 배경변인에 따른 소비행동

변인		소비행동			계획적 소비			과시소비			충동소비			과소비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단계	중학생	2.66	B	28.30***	2.57	C	10.86***	2.86	A	7.10***	2.33	B	5.98**			
	고등학생	2.67	B		2.80	A		2.88	A		2.40	AB				
	대학생	2.98	A		2.68	B		2.71	B		2.49	A				
성별	남자	2.60		7.11***	2.60		3.33***	2.79		0.75	2.18		9.83***			
	여자	2.89			2.74			2.83			2.56					
부의 학력	중졸	2.70		1.17	2.49	B	7.53***	2.70	B	4.86**	2.26	B	5.38**			
	고졸	2.78			2.69	A		2.76	AB		2.41	A				
	대학이상	2.79			2.73	A		2.87	A		2.45	A				
모의 학력	중졸	2.72		0.92	2.57	B	4.69**	2.65	B	9.37***	2.31	B	3.61*			
	고졸	2.79			2.70	A		2.81	A		2.45	A				
	대학이상	2.79			2.74	A		2.92	A		2.42	A				
부의 직업	무	2.83		0.41	2.39	B	6.28***	2.41	C	7.80***	2.30	B	6.11***			
	생산,판매	2.79			2.65	A		2.74	B		2.39	AB				
	사무,기술	2.76			2.67	A		2.83	AB		2.36	B				
	관리,전문	2.81			2.84	A		2.97	A		2.58	A				
모의 직업	무	2.79		1.62	2.71		0.70	2.81		1.94	2.40		0.40			
	생산,판매	2.71			2.66			2.76			2.40					
	사무,기술	2.84			2.66			2.92			2.46					
	관리,전문	2.86			2.75			2.89			2.45					
평 균		2.78			2.69			2.81			2.41					

* p<.05 ** p<.01 ***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여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과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학력은 과소비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유두련 등, 2004)와 없다는 연구(석봉화, 1997; 이은희, 1999)도 있으나 어머니의 학력은 과소비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데 연구결과((김혜인·이승신, 2003; 석봉화, 1997; 유두련 등, 2004; 이은희, 1999)가 일치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직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아버지 직업이 있는 학생의 과소비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충동소비행동은 청소년 단계와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대학생(2.71)보다 중학생(2.86), 고등학생(2.88)의 충동소비 점수가 더 높았다. 선행 연구에서도 연령이 어릴수록 충동구매성향이 강하며(박철, 1996; Rook et al., 1985),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문자·김영신, 2004)에서도 연령이 어릴수록 충동소비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 집단(2.70)과 대졸이상 집단(2.87)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이상인 학생에게서 충동소비 경향이 더 높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상인 집단과 중졸이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상인 학생(2.81, 2.92)에게서 충동소비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직업이 없는 집단과 생산·판매직 집단, 관리·전문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학생의 충동소비 점수(2.97)가 가장 높고 아버지의 직업이 없는 학생(2.41)은 가장 낮았다. 박철의 연구(1996)에서도 부모의 직업이 화이트 칼라일수록 충동구매성향이 높은 것 나타났다.

과소비행동은 청소년 단계와 성별,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과 대학생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대학생(2.49)의 과소비행동 점수가 가장 높고 중학생(2.33)이 가장 낮았다. 여학생(2.56)이 남학생(2.18)보다 과소비 경향이 더 높았다. 부모의 학력은 모두 고졸이상인 집단과 중졸이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상인 학생에게서 과소비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관리·전문직 집단과 직업이 없거나 사무·기술직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아버지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학생(2.58)의 과소비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3)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만족도

재정만족도 하위영역 가운데 용돈수준에 대한 만족점수가 3.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3.05)과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2.99)이었으며, 저축액수에 대한 만족점수는 2.76으로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재정적 만족수준은 중간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만족도 각 하위영역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만족도

변인	재정만족	용돈수준			소비수준			저축액수			전반적 수준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M	D	t, F값
단계	중학생	3.32	A	7.28***	2.96	B	3.75*	3.01	A	16.90***	3.24	A	15.57***
	고등학생	3.34	A		3.10	A		2.78	B		3.06	B	
	대학생	3.10	B		2.93	B		2.53	C		2.86	C	
성별	남자	3.32		-1.96*	3.07		-2.50*	2.83		-1.47	3.10		-1.65
	여자	3.20			2.94			2.72			3.01		
부의 학력	중졸	3.21		0.24	2.95		0.56	2.72	AB	6.14**	2.91	B	6.02**
	고졸	3.24			2.97			2.61	B		2.96	B	
	대학이상	3.26			3.02			2.87	A		3.14	A	
모의 학력	중졸	3.14	B	4.41*	2.94		2.24	2.65	B	6.91***	2.93	B	13.44***
	고졸	3.22	B		2.96			2.70	B		2.96	B	
	대학이상	3.37	A		3.08			2.96	A		3.27	A	
부의 직업	무	3.25		0.54	2.91	B	3.70*	2.97		2.22	2.88	B	7.89***
	생산, 판매	3.21			2.87	B		2.64			2.88	B	
	사무, 기술	3.27			3.07	A		2.82			3.10	AB	
	관리, 전문	3.30			3.04	A		2.80			3.24	A	
모의 직업	무	3.26		1.37	3.02		0.91	2.77	AB	2.98*	3.05	B	8.02***
	생산, 판매	3.18			2.94			2.64	B		2.92	B	
	사무, 기술	3.28			2.95			2.95	A		3.12	B	
	관리, 전문	3.44			3.08			2.97	A		3.57	A	
평균		3.25			2.99			2.76			3.05		

* p<.05 ** p<.01 ***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용돈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 단계와 성별,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과 중·고등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대학생(3.10)보다 중학생(3.32), 고등학생(3.34)이 용돈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여학생(3.20)보다 남학생(3.32)이 용돈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학생과 대졸이상인 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고졸이하인 학생(3.14, 3.22)보다 대졸이상인 학생(3.37)이 용돈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자신의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 단계와 성별,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2.96)과 대학생(2.93)에 비해 고등학생(3.10)이, 여학생(2.94)보다 남학생(3.07)이, 아버지의 직업이 없거나(2.91) 생산·판매직(2.87)인 경우보다 사무·기술직(3.07)이거나 관리·전문직(3.04)인 경우 소비수준에 대한 만족이 더 높았다.

자신의 저축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 단계와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 고, 대학생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중학생(3.01)의 저축액수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고 대학생(2.53)이 가장 낮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집단과 대졸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이상인 학생의 저축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졸이상인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학생에게서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이 생산·판매직인 학생(2.64)보다 사무·기술직(2.95)이거나 관리·전문직인 학생(2.97)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 단계,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 고, 대학생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중학생(3.24)의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고 대학생(2.86)이 가장 낮았다. 부모의 학력은 모두 대졸이상인 집단과 고졸이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학생에게서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직업이 없거나(2.88) 생산·판매직(2.88)인 집단과 관리·전문직(3.24)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아버지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학생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관리·전문직 집단과 그 외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어머니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학생(3.57)의 전반적인 재정만족도가 더 높았다.

2. 재정적 태도와 소비행동, 재정만족도

1) 재정적 태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배경변인이 재정적 태도에 어떠한 선형적 영향(linear effect)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앞에서 살펴본 배경변인 가운데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은 서로 상관이 높기 때문에 회귀식에는 어머니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지위만을 포함시켰다. 성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하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를 하였다. 3개의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구한 결과 1.02~1.20로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오차항의 독립성 검토를 위해 Durbin-Watson의 통계량을 계산하였으며 D-W 값이 1.95~1.97로 나타나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대비 재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beta=.08$)과 성($\beta=.06$)으로 중학교 1학년생부터 대학교 4학년생에 이르기까지 학년이 높아갈수록 그리고 여학생이 과거대비 재정적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타인대비 재정적 태도에 영

<표 5> 재정적 태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재정태도		과거대비		타인대비		미래대비	
		b	β	b	β	b	β		
배경 ^{*)} 변인	학년	-.03	-.08**	.01	.03	.01	.04		
	성	.11	.06	-.02	-.02	-.17	-.11***		
	모의 학력	-.01	-.02	.01	.05	.00	.01		
	부의 직업	.03	.05	.07	.14***	-.01	-.02		
Intercept		3.29		2.59		3.80			
Adj R ²		.01		.02		.01			
F-Value		4.24**		7.99***		4.34**			
D-W		1.97		1.96		1.95			

* p<.05 ** p<.01 *** p<.001

*) 배경변인 측정방법은 III. 연구방법, 척도의 구성에 제시되어있음

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의 직업($\beta=.14$)으로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타인대비 재정적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미래대비 재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beta=-.11$)으로 여학생의 미래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단계와 학년이 올라갈수록 용돈이 조금씩 늘어났을 것인데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거에 비해 재정상태가 나빠졌다고 지각하는 것은 늘어난 수입에 비해 지출의 비율이 더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남학생은 과거에 비해 현재 재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여학생은 미래의 재정상태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시점(時點)에 따른 재정적 태도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지위는 곧 그 가정의 경제적 계층을 나타내므로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다른 또래친구에 비해 자신의 재정적 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재정적 태도에 대한 4개 배경변인의 설명력은 1~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 소비행동에 대한 중회귀분석

배경변인과 재정적 태도가 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4개의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한 분산팽창계수(VIF)는 1.04~1.23이었으며, 오차항의 독립성 검토를 위한 D-W 값은 1.88~1.95로 나타났다.

배경변인 가운데 학년($\beta=.16$)과 성($\beta=-.16$)이, 재정적 태도 가운데 과거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beta=.09$)가 계획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중학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년이 높아질수록 계획적 소

비행동을 많이 하였으며 여학생이 계획적 소비행동을 많이 하였다.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로 갈수록 계획적 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이며 여학생이 소비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경향이 더 높은 것이다. 배경변인을 통제했을 때 재정적 태도는 과거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계획적 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친구들과 비교한 재정상태나 앞으로의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보다는 과거와 비교한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계획행동에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즉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재정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할수록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과 3가지 재정적 태도는 계획적 소비행동의 6%를 설명하였다.

배경변인 가운데 성($\beta=-.07$)과 어머니의 학력($\beta=.07$), 아버지의 직업수준($\beta=.08$), 3가지 재정적 태도 모두 과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여학생이 과소비행동을 많이 하며, 어머니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과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과시소비와 비선형적 관계)은 앞의 분산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나 다른 배경변인과 재정적 태도를 통제 한 상태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다. 재정적 태도 가운데 과거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beta=-.07$)는 과소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거나 타인대비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beta=.11$)와 미래 재정에 대한 태도($\beta=.08$)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과거 2~3년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재정상태가 나아졌다고 생각할수록 과시소비를 적게 하고, 현재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재정상태가 더 낫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앞으

<표 6> 소비행동에 대한 중회귀분석

소비행동		계획적 소비		과시소비		충동소비		과소비	
		b	β	b	β	b	β	b	β
배경 ^{*)} 변인	학년	.04	.16***	.01	.06	-.02	-.08**	.02	.06*
	성	-.24	-.16***	-.10	-.07*	-.04	-.02	-.35	-.25***
	모의 학력	.00	.00	.02	.07*	.02	.06*	-.00	-.00
	부의 직업	.01	.01	.04	.08**	.04	.08**	.04	.09**
재정 태도	과거대비	.07	.09**	-.05	-.07*	-.03	-.04	-.05	-.07*
	타인대비	.04	.05	.11	.11***	.11	.11***	.07	.08**
	미래	.01	.01	.07	.08**	.04	.04	.04	.04
Intercept		2.20		1.87		2.21		2.10	
Adj R ²		.06		.04		.03		.09	
F-Value		12.56***		7.56***		6.71***		16.81***	
D-W		1.89		1.88		1.95		1.92	

* p<.05 ** p<.01 *** p<.001

*) 배경변인 측정방법은 III. 연구방법, 척도의 구성에 제시되어있음

로 2~3년 후의 자신의 재정상태가 더 나아질 것이고 생각할수록 과소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태도가 과소비행동에 동일한 영향을 주지 않고 그 기준점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나타내었다. 배경변인과 3가지 재정적 태도는 과소비행동의 4%를 설명하였다.

배경변인 가운데 학년($\beta=-.08$)과 어머니의 학력($\beta=.06$), 아버지의 직업수준($\beta=.08$)이, 재정적 태도 가운데 타인대비 재정적 태도($\beta=.11$)가 충동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학년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충동적 소비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므로 충동적인 구매를 많이 하는 것이다. 가계소득이나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과소비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유두련 등, 2004)를 볼 때 어머니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지위는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높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과소비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적 태도에서는 타인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만이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어서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재정상태가 더 낫다고 생각할수록 충동적 소비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충동소비경향은 과거와 비교한 재정상태 지각과 미래의 재정상태에 대한 지각보다는 현재 또래 친구들과 비교한 자신의 재정상태 지각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배경변인과 3가지 재정적 태도는 충동소비행동의 3%를 설명하였다.

배경변인 가운데 학년($\beta=.06$)과 성($\beta=-.25$), 아버지의 직업지위($\beta=.09$)가, 재정적 태도 가운데 과거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beta=-.07$)와 타인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beta=.08$)가 과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학생이,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과소비행동을 많이 하였다. 자신의 용돈을 초과해서 불필요한 물건까지 구입하는 과소비경향은 어린 청소년보다 나이가 든 청소년일수록 강하였으며 과소비행동과 마찬가지로 여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가처분 용돈액수가 많을 것이며 이는 과소비행동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거대비 재정태도와 타인대비 재정태도는 과소비행동과 상반된 방향의 효과를 보였다. 과거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재정상태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과소비경향이 낮으나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재정상태가 낫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과소비경향이 높았다. 배경변인과 3가지 재정적 태도는 과소비행동의 9%를 설명하였다.

3) 재정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인과적 효과분석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근거로 하여 상관관계분석(<표 7>)과 회귀분석(<표 5, 6, 8>)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그림 2>).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1) 재정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배경변인과 재정적 태도, 소비행동이 재정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4개의 회귀식에 포함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한 분산팽창계수(VIF)는 1.07~1.97이었으며, 오차항의 독립성 검토를 위한 D-W 값은 1.89~2.05로 나타났다.

<표 7>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학년	1.00										
2. 성	-.15***	1.00									
3. 모의 학력	-.25***	.05	1.00								
4. 부의 직업	-.07**	.02	.32***	1.00							
5. 과거대비	-.08**	.06	.01	.06	1.00						
6. 타인대비	.01	-.01	.09**	.16***	.38***	1.00					
7. 미래	.07*	-.10***	-.01	-.02	.20***	.11***	1.00				
8. 계획소비	.19***	-.20***	-.05	.00	.09**	.09**	.06*	1.00			
9. 과소비	.05	-.09***	.09**	.11***	.00	.12***	.08**	-.04	1.00		
10. 충동소비	-.09**	-.02	.12***	.12***	.03	.12***	.04	-.18***	.35***	1.00	
11. 과소비	.10***	-.27***	-.00	.09**	-.03	.08**	.07**	-.02	.43***	.61***	1.00
12. 재정만족도	-.15***	.07*	.10***	.10***	.30***	.32***	.04	.29***	-.13***	-.14***	-.19***

* p<.05 ** p<.01 *** p<.001

<표 8> 재정만족도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재정만족도	
			b	β
배경 ^{*)} 변인	학년		-.05	-.16 ^{***}
	성		.09	.06 [*]
	모의 학력		.01	.05
	부의 직업		.02	.04
재정 태도	과거대비		.14	.16 ^{***}
	타인대비		.26	.25 ^{***}
	미래		.01	.01
소비 행동	계획소비		.29	.27 ^{***}
	과시소비		-.09	-.08 ^{**}
	충동소비		-.04	-.04
	과소비		-.13	-.11 ^{**}
Intercept			1.55	
Adj R ²			.28	
F-Value			42.36 ^{***}	
D-W			2.02	

* p<.05 ** p<.01 *** p<.001

^{*)} 배경변인 측정법은 III. 연구방법, 척도 구성에 제시되어있음

청소년의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β=-.16)과 성(β=.06), 과거대비 재정적 태도(β=.16), 타인대비 재정적 태도(β=.25), 계획소비(β=.27), 과시소비(β=-.08), 과소비(β=-.11)이었다. 학년이 낮을수록 남학생이 과거대비 현재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타인대비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계획적 소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과시소비와 과소비행동을 적게 할수록 재정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청소년 초기보다 후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재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같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재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주어진 재정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태도는 역시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효과를 보여 과거에 비해 그리고 타인에 비해 자신의 재정상태가 좋아졌다고 평가할수록 현재재정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미래 재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현재재정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비행동 가운데 합리적인 소비행동인 계획소비는 재정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인 과시소비와 과소비는 재정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신의 현 재정에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를 버리고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배경변인과 재정적 태도, 소비행동은 재정만족도의 28%를 설명하였다.

(2) 재정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경로적 인과관계

배경변인, 재정적 태도, 소비행동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간접효과와 비인과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 효과를 계산하였다(<표 9>).

재정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의 총체적 효과는 모두 유의한 수준이나 학년과 성에서만 유의한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다. 재정만족도에 대해 배경변인 모두 재정적 태도와 각 소비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의 경로가 발견되었으나(<그림 2>) 그 정도는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재정적 태도 가운데 과거대비 재정적 태도와 타인대비 재정적 태도는 재정만족도와 상관이 매우 높으며 그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였으며 각 소비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의 경로도 발견되었다. 과거대비 재정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계획소비를 많이 하는 반면 과시소비와 과소비를 적게 하며 이는 높은 재정만족도를 가져왔다. 타인대비 재정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과시소비와 과소비를 많이 하며 이는 재정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간접효과 계수가 크지는 않았다. 한편 이 두 변인은 비인과적 효과도 발견되어서 다른 변인을 매개변인으로 한 차후연구가 요구된다. 미래 재정상태에 대한 태도는 재정만족도에 그 어떠한 유의한 효과도 발견되지 않아서 청소년에게 있어 미래의 재정상태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결코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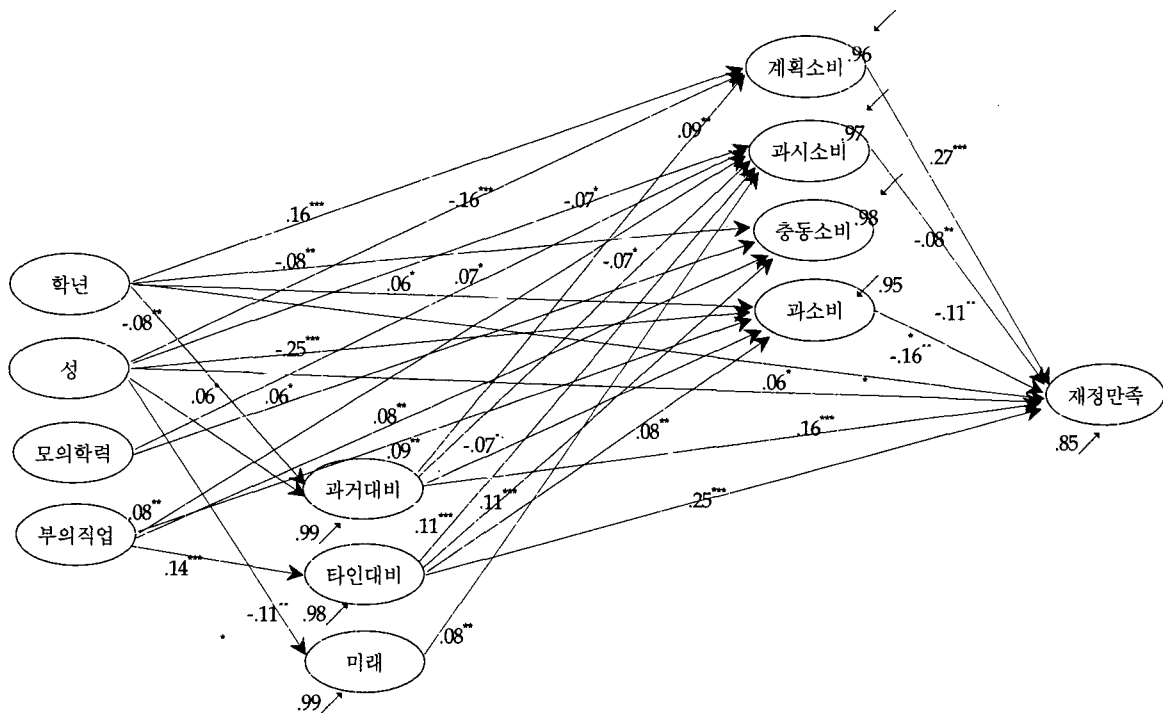
소비행동 가운데 계획소비는 재정만족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대부분 직접적 인과효과를 보였다. 한편 과시소비와 과소비는 재정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 효과는 인과적 직접효과와 약간의 비인과적 효과이었다. 충동소비행동은 재정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인과적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충동 소비는 과시소비와 과소비를 통제했을 때 재정만족도에 유의한 인과적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총체적 효과는 유의한 부적 효과를 보여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이 재정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결론을 지지하였다.

<표 9>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인과효과 분할

종속변인	독립변인	총체적 효과 (단순상관(r))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효과(β)	간접효과		
소비행동	계획 소비	학년	.19***	.16***	-.01	.04
		성	-.20**	-.16***	.01	-.05
		모의 학력	-.05	.00	.00	.05
		부의 직업	.00	.01	.00	-.01
		과거대비	.09**	.09**	-	.00
		타인대비	.09**	.05	-	.04
	미래	.06*	.01	-	.05	
	과시 소비	학년	.05	.06	-.01	.00
		성	-.09**	-.07*	-.01	-.01
		모의 학력	.09**	.07*	.00	.02
		부의 직업	.11***	.08**	.02	.01
		과거대비	.00	-.07*	-	.07
		타인대비	.12***	.11***	-	.01
	미래	.08**	.08**	-	.00	
	충동 소비	학년	-.09**	-.08**	.00	-.01
		성	-.02	-.02	.00	.00
		모의 학력	.12***	.06*	.00	.06
		부의 직업	.12***	.08**	.02	.02
과거대비		.03	-.04	-	.07	
타인대비		.12***	.11***	-	.01	
미래	.04	.04	-	.00		
과소비	학년	.10***	.06*	.01	.03	
	성	-.27**	-.25***	-.00	-.02	
	모의 학력	-.00	-.00	.00	.00	
	부의 직업	.09**	.09**	.01	-.01	
	과거대비	-.03	-.07*	-	.04	
	타인대비	.08**	.08**	-	.00	
미래	.07**	.04	-	.03		
재정 만족도	학년	-.15***	-.16***	.03	-.02	
	성	.07*	.06*	-.01	.02	
	모의 학력	.10***	.05	-.01	.06	
	부의 직업	.10***	.04	.02	.04	
	과거대비	.30***	.16***	.04	.10	
	타인대비	.32***	.25***	-.02	.09	
	미래	.04	.01	-.01	.04	
	계획소비	.29***	.27**	-	.02	
	과시소비	-.13***	-.08**	-	-.05	
충동소비	-.14***	-.04	-	-.10		
과소비	-.19***	-.11**	-	-.08		

* p<.05 ** p<.01 *** p<.001



<그림 2>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모형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은 재정에 대해 중간정도 이상의 태도를 보였다. 과거에 비해 현재 재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래의 재정기대는 보다 더 긍정적이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종단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횡단적 측면으로 타인과의 재정을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태도경향을 보여 오늘날의 청소년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신의 재정은 낙관하는 데 비해 또래 친구들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학교단계와 학년이 올라갈수록 용돈이 조금씩 늘어났을 것인데도 조사대상 청소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거에 비해 재정상태가 나빠졌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오늘날 청소년의 용돈수준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서 일수도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수입(용돈)의 상승보다 지출의 비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학생은 과거에 비해 현재 재정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여학생은 미래의 재정상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시점(時點)에 따라 재정을 바라보는 청소년의 시각에 남녀간의 차이

가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은 학생이 또래 친구에 비해 자신의 재정상태가 좋다고 지각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지위는 곧 그 가정의 경제적 계층을 나타내므로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다른 또래친구에 비해 자신의 재정적 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초기단계에는 충동소비 경향이 높고 중기에도 여전히 충동소비가 높고 과시소비 경향까지 높으나 청소년 후기단계에는 계획적 소비와 과소비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은 나이가 어릴수록 충동성이 강하고 나이가 들수록 계획성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용돈을 초과해서 불필요한 물건까지 구입하는 과소비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여학생은 합리적인 소비행동과 비합리적인 소비행동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상이거나 아버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지위는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높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은 주로 나이가 어릴수록 전반적인 재정만족도가 높았다. 역으로 보면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재정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검증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거나 부모의 직업수준이 높은 학생의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아버지의

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재정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며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계층이 높아 재정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다섯째, 과거에 비해 현재재정상태가 좋아졌다고 평가할수록 계획적 소비행동을 많이 하였다. 과거대비 재정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타인대비 재정태도와 미래재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과소비성향이 높았다. 타인대비 재정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충동소비를 많이 하며, 과거대비 재정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타인대비 재정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과소비성향이 높았다. 즉 과거대비 재정태도는 합리적인 소비행동에는 정적 영향을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타인대비 재정태도와 미래에 대한 재정적 태도는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여섯째, 재정적 태도는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효과를 보여 과거에 비해 그리고 타인에 비해 자신의 재정상태가 좋아졌다고 평가할수록 재정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미래 재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현 재정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정적 태도는 각 소비행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의 경로가 발견되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소비행동 가운데 합리적인 소비행동인 계획소비는 재정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인 과소비와 과소비는 재정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결국 자신의 현 재정에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를 버리고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적 태도는 현재의 재정상태를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여기는 태도인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소비행동인 계획소비는 재정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합리적인 소비(과소비와 과소비)는 재정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청소년 자신의 재정적 만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행동은 계획적 소비인 것이다. 주어진 재정적 자원을 미리 예측해 보고, 소비하기 전에 반드시 계획(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실행력을 증강시키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요구된다. 한편 청소년에게 있어 과소비와 충동소비, 과소비는 명확히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이며 이들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를 줄이지 않고는 재정적 불만이 계속될 것이므로 이들 비합리적 소비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에 비해 현재 재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합리적인 소비행동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고 비

합리적인 소비행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태도이며 재정만족도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태도이므로 청소년 소비자교육에서 바람직한 재정적 태도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상태를 더 낮게 생각하는 태도는 현재의 바람직한 행동과 만족을 낳지 못하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현재를 과거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태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타인에 비해 자신의 재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재정만족도와는 정적인 관련이 있지만 비합리적인 소비행동과도 정적인 관련이 있어서 태도효과 상반된 속성을 엿 볼 수 있다. 타인에 비해 자신의 재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미래 재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나쁜 태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적당한 수준일 때는 자신감과 만족감을 나타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강하면 과소비나 충동소비, 과소비와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태도에 대한 점검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합리적인 소비행동인 계획소비를 위해 요구되는 과거대비 재정적 태도는 남자청소년이 더 긍정적이던데 비해 계획소비는 여자청소년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합리적 소비뿐 아니라 비합리적인 소비경향까지도 높았다. 청소년 소비자교육에서 남학생은 계획적 소비행동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과거에 비해 현재의 재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태도교육과 비합리적인 소비행동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의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모의 학력과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타인(또래) 대비 재정적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타인대비 재정적 태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유발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부모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높은 학력과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진 부모가 사회의 모범이 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자녀가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반성할 일이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교육 캠프 등을 마련하여 따로 재정적 태도와 소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여섯째, 청소년 전(全)단체를 볼 때 청소년 초기로 갈수록 과거에 비해 자신의 재정상태가 좋아졌다고 지각하였으며, 재정만족도도 높은 반면 재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소비는 오히려 낮았다. 한편 충동소비는 초

기청소년이, 과시소비는 중기청소년이, 과소비는 후기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기청소년은 재정에 대한 태도나 만족도는 높으나 구체적인 재정관리의 실행력이 부족하고 소비에서 충동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충동소비를 줄이고 계획소비를 강조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사춘기의 절정인 중기청소년에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소비경향이 이 시기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청소년 후기나 성인기까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교육에서 과시소비 부분을 자연스럽게 다루줘야 할 것이다. 과소비는 청소년보다 성인에게서 더 문제가 되는 소비행동인데 과연 청소년 후기에서 더 높게 나타나서 과소비 부분은 청소년 초중기보다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5년 11월 15일
- 심사 일 : 2006년 01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4월 27일

【참 고 문 헌】

계선자·유을용(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50.

권미화·이기춘(2000). 청소년 소비자의 소비행동의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75-190.

김경자(2003). 대학생들의 화폐태도와 개인재무관리 실태. **소비문화연구**, 6(3), 33-50.

김동기·이용학·이성호(2001). **소비자행동**. 서울: 박영사.

김성엽(1997). 신세대 소비자의 카드소지와 과시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3(1), 189-210.

김정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김정훈(1993). 남녀 대학생들의 금전관리 관련행태와 인식. **소비생활연구**, 11, 43-54.

김혜인·이승신(2003). 청소년소비자의 과시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145-156.

리대용·이상빈·곽현진(1997).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쇼핑행동에 따른 구매충동과 강박구매. **광고연구(가을)**, 127-137.

박명희·이승신·배미경(1996). 한국 도시근로자가계의 과소비와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5), 209-222.

박미정(2001). **과시소비성향과 정장 수입브랜드선호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아(1994). **자기존중감, 사회적 인정욕구, 돈에 대한 태도에 따른 현시적 소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박철(1996). 청소년의 충동구매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 103-120.

백경미(1995). **도시주부의 과시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석봉화(1997).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 가치와 소비지향적 태도가 과시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윤·이채희(2000). 충동구매 경향성 척도 개발 및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2), 137-168.

유경희(1999). **청소년의 과시소비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두련·박영미·함현정(2004). 중, 고등학생의 과시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7(1), 23-46.

이기춘(2000).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문사. 221-237.

이윤금·이남숙(1999). 대학생의 과시소비성향과 관련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5), 19-29.

이은희(1999). 청소년 소비자의 과시소비 성향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31.

이채희(1998). **충동구매 경향성 척도개발과 타당화를 위한 일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장휘숙(2000).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정준(1997). **소비사회의 실상과 바람직한 소비문화의 모색**.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성표 역(1992). **래리버켓 저(1992). 돈 걱정 없는 가정**. 서울: 기독교 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CUP).

주문자·김영신(2004). 대학생 소비자의 충동구매성향에 대한 인과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47-58.

편세린(1997). **청소년의 소비지향적 태도와 과시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허경옥(2004). 타인과 본인의 비합리적 소비성향 및 소비생활만족도. **소비문화연구**, 7(3), 85-101.

홍은실·양남희(2001). 여고생의 가치지향성과 금전사용양식이 금전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37-46.

홍은실·황덕순·한경미(2001).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

- 치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사용행동.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9(1), 143-158.
- 홍은실·황덕순(2002). 여대생소비자의 목표중심적 가치가 재정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2), 175-186.
- 홍향숙(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Edwards, E.(1993). Developing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compulsive behavi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67-85.
- Engel, J.F., Blackwell, R.D. and Miniard, P.W.(1990). *Consumer Behavior*, 6th ed., The Dryden Press, 475-482.
- Faber, R. J.(1992), "Money Change Everything: Compulsive Buying From A Biopsychosocial Perspectiv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July), 809-819.
- Grable, J. E. and Joo, S. H.(2001). A subsequent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worth and financial beliefs, behavior, and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3(5), 25-30.
- Hallowell, E.M. and Grace, W.J.(1991). *Money and mind: money style*. New York: Plenum Press.
- Hira, T. K. and Mugenda, O. M.(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worth and financial beliefs, behavior, and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1(4), 76-82.
- Hirschman, E.C.(1992). The consciousness of addicti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compulsiv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Sep), 155-179.
- Lytton, R., Garman, E. and Porter, N.(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3.
- Piron, F.(1991). Defining impulse purchasing.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8, 509-514.
- Roberts, J. A. (1998), "Compulsive Buying Among College Students: An Investigation of its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2(2), 295-319.
- Rook ,D.W. and Hoch, S.J.(1985). Consuming impuls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2, 23-27.
- Rubenstein, C.(1981). Money and self-esteem, relationships, secrecy, and satisfaction. *Psychology Today*, 15(5), 29-44.